

알레르기클리닉 운영사례와 노하우

GF 내과

이 영 목

일차진료에서 알레르기질환의 진료 현황

전 세계적으로 기관지 천식을 비롯한 알레르기 질환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8년 국민건강통계에서 19세 이상 성인에서 천식의 의사진단 유병률은 1.1% 였으나 2015년에는 3.1% (국민건강영양조사, 2015)로 증가하였고 만성질환 질병부담 순위 5위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은 천식보다 훨씬 높아서 과거 1.2%에서 16.4%로 증가율이 매우 가파르다. 특히, 소아-청소년기에 있어 질병부담이 가장 높은 질환은 천식으로, 잦은 재발과 증상 악화로 응급실 방문과 입원 치료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이로 인한 결석률이 20.9%에 이르고 있다. 한 제약사에서 2015년 하반기 일차 진료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6,115명 응답자 중에서 알레르기 질환 관련하여 원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는 전체의 36%인 2,21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중 알레르기 비염과 기관지천식, 비염과 천식 동반이 의심되는 경우는 각각 27%, 2%, 7% 였다.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의 과거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현재 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각각 67%, 54%로 매우 높았다. 이번 설문 조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2015년 상반기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내과 방문 비율이 높은 고혈압 또는 당뇨 환자에서의 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되는 비율이 일반 성인 참가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일차 진료 의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검증된 연구에서 보여지는 결과보다는 더 높은 비율로 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되거나 불편해 하는 점들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환자들의 증상을 체계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검증된 방법으로 진단 또는 좀 더 정확한 진료를 위하여 알맞은 상급병원으로 의뢰해줄 수 있는 일차 진료 의원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인들은 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만족할만한 치료를 못 받는 경우에 다음으로 찾는 방법은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또는 민간요법에 관한 광고 또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검증되지 않은 답변이 전부여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은 매우 흔하다. 그리고 이런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시도하여 낭비되는 시간과 사회-경제적인 부담은 매우 크고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알레르기클리닉 준비하기 및 조언

일반인들에게 알레르기는 매우 특수한 질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알레르기 질환의 증상이 있어도 진료가 필요한 것인지,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은 안과, 비염 증상 또는 기침이 지속되면 이비인후과, 두드러기 및 아토피피부염 증상은 피부과에서 각각 진료를 받고 있으나 일차진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내과 의원에서는 이런 질환들에 대한 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National Health Service로 운영되는 영국에서도 비슷한 현실이다. 일차진료 의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 연구에서 응답자인 의사들의 80% 이상에서 스스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일차의료의 질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알레르기 질환의 진료는 검사 장비를 갖추는 것이 다른 전문 과목에 비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검사 담당자를 잘 교육시킨다면 매우 높은 질의 진료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방문하는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피부시험 (흡입과 음식물)과 폐기능 검사, 기관지유발시험, 영상의학장비를 갖추고 검사 인력만 확보된다면 진료를 시작할 수 있고 특히 IgE 검사 (UniCAP[®])는 수탁 검사 의뢰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전문 진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방형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소수의 환자들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러므로 알레르기 전문 진료를 표방하고 홍보하더라도 다른 내과 질환에 대한 진료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고 내원하는 환자 수를 초기부터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전형적인 알레르기 질환의 증상으로 방문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반복적인 방문에서 얻어지는 병력에서 알레르기 질환을 의심 하고 이어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의 특성상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환자 본인 이외에 가족들의 진료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서도 일반인들과 거의 같은 확률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고 진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은 물론이고 다른 만성질환에서도 모두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원 초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는 다른 지역 의원에 비해서 뚜렷하게 많은 피부시험과 기관지유발시험 등으로 인해 의료보험공단과 심평원에서 이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구 받고 답변을 보내느라 검사 청구 액을 약 3개월 정도 지급받지 못한 경험도 있었다. 또한, 알레르기 질환 이외에 다른 내과 질환도 진료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개원 초창기부터 일반 내과 질환도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꾸준히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진료에서 알레르기 특성화 전략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이후로 DRG (Diagnosis Related Group), 수가계약제 및 수가현실화, 주치의 제도, 의약품설거래가제도, 집단개원, 대체의학 및 한방병원의 난립 등과 같이 의료환경은 계속 변화되고

달라질 것이다. 특히 대도시 지역은 공동개원과 의료기관 프랜차이즈를 통한 전문화 및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 진료가 늘어나고 있다. 2001년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외래환자 점유율은 74.6%에서 60.6%로 급감하고 있고 일일평균외래 환자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수가인상률은 9년 평균 2.53%에 그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급여 진료로 이루어져 있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의원은 만족할 만한 수익을 이루기가 쉽지 않으면서 병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만 안고 있는 대표적인 진료과로 변해가고 있다. 소화기내과가 중심이 되어 건강 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원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그 외로 특성화된 진료를 하는 곳은 류마티스 내과를 들 수 있다. 최근 집계된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레르기 분과전문의를 유지하는 의사는 116명 밖에 되지 않고 이들의 대부분은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차 진료 영역에서 알레르기 진료를 특성화 한다는 것은 선두주자로서 선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들어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욕구가 늘어감에 따라 비염이나 천식에 대한 치료 중에서 알레르기 특이 면역 요법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연령대는 한 자녀 또는 두 자녀인 가정이 많고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와 면역 요법 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내과와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료하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하여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비교적 성공적인 개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알레르기 전문 진료를 한다는 것과 특성화 (차별화)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요소 (humanware)이고 그 인적 요소가 만들어 가는 소프트웨어 (software)가 특성화-차별화 될 적에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2000년에 비해 내과 전문의 수는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인구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문의 취득 후 많은 내과 의사가 개원가로 뛰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알레르기 전문의의 존재는 특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희소가치가 높은 원석과 같은 존재이다. 이를 다듬어서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병원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본인의 몫이라 판단한다.

REFERENCES

1.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NES), 1998 to 2015.
2. Allergy ABC Questionnaire by MSD 2015
3. Chipps BE, Foggs MB; Asthma Management and the Allergist, Better Outcomes at Lower Cost. American College of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 2015
4. Allergy: the unmet need. A blueprint for better patient care. A report of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Working Party on the provision of allergy services in the UK 2003.